

아카데미상 후보작 한자리서 만난다

CGV 아트 하우스 광주 터미널점 오늘~3월 16일 후보작 20편 상영

국내 최초 미개봉 화제작 볼 기회도

올해로 88회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영화팬들의 관심이 높은 행사다.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리는 제88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후보로 오른 영화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시상식 이후에는 주요 부문 수상작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광주 터미널점 등 전국 20여개 CGV 아트하우스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작 20편을 상영하는 '2016 CGV아트하우스 아카데미 기획전'을 진행한다. 현재 개봉 중인 작품과 함께 이미 상영이 끝난 영화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다. 국내에서 아직 개봉되지 않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의미있다.

'레베넌트 : 죽음에서 돌아온 자'는 올해 가장 많은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작품이다. 지난해 '버드맨'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던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나리투의 감독상과 함께 지금까지 아카데미와 인연이 없었던 리아나도 디캐프리오의 남우주연상 수상이 유력시 되는 등 모두 12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또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 팻 데이먼이 주연을 맡았던 '미션'(7개 부문)도 관객을 만난다. 2005년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던 4명

의 괴짜가 20조원의 판돈을 걸고 세계 경제 시장에 도박을 감행하는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빅쇼트'는 감독상·각본상 등 5개 부문 후보작이며 운명처럼 만난 두 여인의 사랑을 그린 '캐롤'은 여우주연상, 여우 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그밖에 '스티브 잡스', '스파이 브릿지', '시카리오 : 암살자의 도시', '유스', '헤이트풀8' 등 화제작들도 포함됐다.

'45년 후', '대니쉬 걸', '무스타', '브루클린', '사울의 아들', '스포트라이트', '아노말리사', '조이', '트럼보' 등 국내 미개봉 영화도 만날 수 있다.

또 영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CGV아트하우스 이동진의 라이브톡'은 22일 오후 7시 전국 CGV 아트하우스를 통해 생중계 진행된다. 선정작 '사울의 아들'은 제73회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 최고조에 달했던 1944년 시체 처리 유대인 작업반원이었던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밖에도 미개봉 화제작을 국내 최초로 만날 수 있는 '프리미어 데이'를 개최한다. 폴리처상을 수상한 보스턴 글로브 기자들의 실화로 작품상, 각본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스포트라이트'는 20일 오후 2시에, 7년 동안 납치범에게 감금 당해 그의 아이를 낳고 키우



'사울의 아들'



'캐롤'



'빅쇼트'

게 된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6개 부문 후보작 '룸'은 27일 오후 2시 전국 CGV아트하우스에서 상영된다.

한편 올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케이블 CG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해도 되는 조롱은 없다

신형철 칼럼



프랑스의 주간신문 '샤를리 에브도'가 작년 9월 난민 소년 쿠르디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만평을 게재하고 이를 풍자라 변호했을 때, 또 '노(Roh)'라는 사람이 부영이비위에서 뛰어내려 머리가 나빠졌다는 내용의 영어 지문이 포함된 시험 문제를 출제한 홍대 모교수가 전직 대통령은 신이 아니니 비판받아도 된다고 신공격을 자행하는 일부 네티즌들을 보았을 때, 나는 뭔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 사례들에서 '비판'과 '풍자'와 '조롱'은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비판은 어떤 논리에 대해 대항 논리로 반박하는 행위로서 나머지 둘과 명백히 다르다. 그러나 풍자와 조롱은 둘 다 웃음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자주 혼동된다.

첫째, 대상이 '감자인가 약자인가'는 오래된 기준 중 하나다.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감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만 풍자다. 그때 그 일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폭로하는 송고한 행위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적 권력자와 단순한 유명인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자는 대개 유명인이지만, 유명인이 언제나 권력자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라면, 직업의 성격상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졌을 뿐인 사람은 유명인이다. 유명인을 향한다고 해서 조롱이 풍자가 되진 않는다. 게다가 오늘날의 매체 환경 속에서 실명이나 노출된 유명인과 익명의 보호를 받는 네티즌 중에서 누가 더 감자인가. 유명인이란 감수해야 할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가학을 합리화하는 궤변이다.

둘째, 대상의 속성이 '선택인가 조건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권력자의 판단과 행위와 그 결과가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대중적 영향을 끼쳤을 때, 그의 그런 '선택'과 관련된 사

항들은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가 스스로 선택한 바 없는 자신의 '조건'은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예컨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을 결이를 문제 삼는 일은 비판도 풍자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한 권력자이고 박근혜 현 대통령은 그야말로 권력자다. 그러나 누가 그들의 판단과 행위와 그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모와 성별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면 그 대상이 아무리 권력자라 해도 그 행위는 비열하다.

셋째, 그 웃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 풍자는 상호 토론을 제안하는 일이며 결국 대상에 영향을 미쳐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터다. 그런 목적과 무관한 웃음은 미심쩍은 것이다. 여기서 죽음과 웃음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죽은 자도 풍자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생전 그의 부당한 판단과 행위와 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또 여전히 그의 뜻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토론을 제안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지금 '죽어가는 사람'과 그의 '죽음 자체'는 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웃음은 풍자에 동반되어야 하는 목적과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은 노무현'을 풍자할 수는 있어도 '노무현의 죽음'을 풍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 무슨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 언어로 행한 시신 훼손일 뿐이다.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다. 풍자는 특정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조롱은 언제나 불가능하다. 타인을 조롱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저급한 쾌감이며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장 저열한 존재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일이다. (타인의 조롱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은 이들이 그에 대한 반발로 타인을 조롱하는 데 몰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해 못 할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은 엄연하다.) 이 세상에 해도 되는 조롱은 없다. 앞으로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내 문장을 누군가를 조롱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나는 그 날로 글쓰기를 그만 두어야 마땅할 것이다.

<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나주 출신 이철송 시인 24년 만에 첫 시집 '땅고風으로...' 펴내

나주 출신 이철송(57) 시인이 24년 만에 첫 시집을 펴내 화제다.

1992년 '실천문학' 가을호로 등단한 이후 24년 만에 펴낸 시집 '땅고風으로' 그러므로 희극적으로(도서출판 b)는 긴 침묵만큼이나 목지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시들이 수록돼 있다.

총 4부로 나누어진 작품집에는 모두 53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시집을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이다. 시인은 "사랑만이 인간을 견디게 해준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탐색한다.

한신대 교수인 최두석 시인이 지적한 대로 이 시집은 '사랑으로 삶의 허무 건너기'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이 어떻



게 개입하고 삶을 견인하는지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존재를 지배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듯 시인은 예술의 가장 보편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면밀하게 탐구한다. 표제작 '땅고風으로 그리

므로 희극적으로'는 '탱고'연락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희극성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이다. 춤과 음악이 결합된 탱고의 이면에는 진지하면서도 희극적인 사랑의 이면이 담겨 있다는 의미다.

저자는 '시인의 말에서' "나는 내 삶이, 내 시가 탱고처럼 항상 터무니없이 즐겁고 재즈처럼 건들거렸으면 좋겠다"면서 "세상의 눈치를 살짝 보며 중얼거리고 있다"고 시집 출간 의미를 밝힌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영문 도서 시리즈가 출간

세계에 우리 문화의 타일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영문 도서 시리즈가 출간됐다. 서울셀렉션은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시각적으로 재조명하는 '비주얼 코리아 헤리티지'(Visual Korean Heritage) 시리즈 제1권으로 최근 '조선시대의 궁중 회화'를 출간했다.

제1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이며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인 박정혜가 맡았다. 조선시대 궁중회화는 왕실의 권위, 다양한 길상(吉相), 의례적 상징의 보고(寶庫)로 꼽힌다. 170쪽 분량 중 120쪽에 이미지를 풍부하게 실었다. 시리즈 2권에선 김문식 단국대 교수가 의궤를, 3~4권에선 정병모 경주대 교수가 민화를 각각 소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大 프리모 남가발

기능장1호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아리랑 하우스 5주년 기념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